

판교
판전

板橋 板殿

2020.vol.03



존엄한 삶

가치로운 삶

행복한 지역복지공동체

2020년 12월호 | 통권03호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991 판교노인종합복지관 | Tel. 031-620-2810 Fax. 031-203-5108 www.pangyonin.or.kr

COVER STORY

한 쌍의 부부 새를 표현한 민화로
가정의 화합과 행복을 기원하는 작품입니다.

-〈화조도〉 판교노인종합복지관 유귀수 회원 -

CONTENTS

2020.vol.03



노인의 존엄한 삶 가치로운 삶을 실현하여 행복한 지역복지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 02 관장스님 말씀
- 04 우리의 시간 한 눈에 보는 2020
- 06 기획특집 코로나19, 더 따뜻한 변화
 - 더 가까이
 - 더 세심하게
- 20 우리의 꿈
 - 사랑의 주머니
 - 다시, 시작 [reboot]
 - 배움으로 표현하는 '나'
- 30 2020 판교 누림
 - (누림: 인생의 참된 즐거움을 모두 누리다.)
 - 판전으로 보는 미술관 프로젝트
 - 판전에서 떠나는 겨울여행
- 34 판교봉은주간보호센터
- 36 판교 화엄
 - (화엄: 만행과 만덕을 닦아 덕과를 장엄하게 하는 일)
 - 아름다운 당신 '후원자'
 - 2020 자원봉사자&후원자 명단
 -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

동권 제3호 발행처 판교노인종합복지관 발행인 일운
발행일 2020년 12월 편집인 이순호 진행 우윤정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99
Tel 031.620.2810 Fax 031.703.5108
홈페이지 www.pangyonoin.or.kr 디자인 디자인공작소
페이스북 www.facebook.com/pangyonoin

| 판교노인종합복지관 연간 소식지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 장마와 코로나19로 위험받던 시간이 흘러 어느덧 새로운 시작의 문 앞에 서있습니다.

상상하지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어르신들과 함께 웃고 꽂 피운 시간이 그저 희망사항이 되어버린 것에 깊은 유감을 느낍니다.

판교노인종합복지관은 10개월 간 텅 빈 복지관을 바라보며 그리움, 아쉬움 그리고 새로운 시도라는 여러 형태의 감정과 변화를 겪은 한 해였습니다. 보왕삼매론(寶王三昧論)에 보면 '수행하는데 마魔가 없기를 바라지 말라'는 부처님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수행하는데 마가 없으면 서원이 굳건해지지 못한다는 가르침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 우리의 그릇을 키우는 기회로 여기고자 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일상도 많이 달라지셨겠죠?

휴관기간 동안 전 직원은 묵묵히 어르신들의 빈자리를 지키며 다시 만날 그 날을 위해 시설 재정비와 다양한 비대면 사업으로 다사다망(多事多忙)하게 보내왔습니다.

특히 복지관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외출이 제한되어 어려움을 겪으실 어르신을 위해 노인맞춤돌봄사업을 강화시키고 의료, 건강, 식품, 정보를 어르신 가정에 직접 찾아가 전달해 드리는 방문 복지 서비스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온라인 홍보를 활성화 시켜 새로운 SNS매체를 개설하거나 유튜브와 줌(ZOOM)을 활용해 어르신 여러분화를 위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런 새로운 시도들이 밑거름이 되어 2021년 판교노인종합복지관은 어르신을 다시 맞이하였을 때 더욱 질 높은 서비스로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년에 함께 동행하고자 합니다.

판교노인종합복지관 이용 어르신, 2020년 어려운 시국에서 극복의 의지와 믿음을 가지고 잘 이겨내 왔던 것처럼 2021년 신축년에도 화엄경 말씀인 신위도원공덕모(信爲道源功德母), 장양일체제선근(長養一切諸善根)으로 일상의 복귀와 모든 가정에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

판교노인종합복지관 한 눈에 보는 2020

01.20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발대식

코로나19로 인한 복지관 잠정 휴관

잠깐이면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19는 2월 3일부터 현시점까지 우리를 꼼짝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복지관은 어르신과 다시 만났을 때 더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위해 열화상 카메라 및 전신 소독기 설치와 매일 전관 방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자에 대한 방문대장 기록도 꼼꼼하게 하며 판교노인종합복지관 코로나ZERO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02.03

01.22

설 명절 행사 '설레는 설, 건강한 설, 행복한 설'

다 함께 어울리며 즐겼던 설 행사가 2020년의 마지막일 줄이야. 새해소원작기, 책갈피 만들기와 같은 체험활동과 풍물, 민요공연으로 어깨를 들썩이며 다 함께 흥겨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설 행사가 없었더라면 더욱 아쉬움이 컸을 한 해였을 것 같습니다. 소소했던 일상의 소중함과 그리움이 겹쳐 옵니다.



- 02.11 성남시청 1인가구지원팀 '우리동네 같이부엌' 업무 협약 체결
- 03.06 한마음사회복지재단 '대상포진' 백신 기증
- 03.12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선배시민 자원봉사활동 수행기관 선정
- 04.01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지역발전운용자금' 수행기관 선정
- 04.24 경기복지재단 노인일자리 참여노인 직무교육 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
- 06.01 2020년 저소득 어르신 긴급 먹거리 지원 사업
- 06.24 수정구 보건소 연계 로봇활용 '사회적약자 편의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성과보고대회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우수영상 부문)

354명의 돌봄 서비스 대상 어르신 가정을 30명의 생활지원사가 매일 같이 방문해 어르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훌린 땀과 노고를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과 맞춤돌봄서비스 사업에 대해 알고 싶어 '현장 속으로'라는 영상을 제작하였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성과보고대회 영상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07.24

09.07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 육구조사 진행



09.21

온라인 노인의 날 기념행사 102(일공이-일상을 공유하는 이야기)

10월 2일은 노인의 날이죠? 매년 풍성하게 진행됐던 행사는 비대면으로 바뀌어 처음에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카카오채널을 통해 어르신과 지역주민이 집에서 참여할 수 있는 부대행사를 준비하였고, 100여 명 넘게 행사에 참여해 주시면서 결과는 대성공! 어르신들의 지나온 이야기, 그리고 지금의 이야기를 나누며 '노인의 날'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내년에는 꼭 얼굴 마주하며 즐길 수 있는 행사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구석까지 살펴주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1
더 가까이

기획특집
코로나19,
더 따뜻한
변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자
기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장기요양 상태가 되는 것을 예방하고 정든 곳에서 가족, 이
웃과 함께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30명의 생활
지원사가 분당구 내 337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르신의 든든한 지원군 서혜선 생활지원사!

하루의 시작은 전화로 '어르신, 밤새 안녕히 주무셨어요? 발열이나 구토 증세는 없으시고요?'라고 여쭤보며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고 방문 일정을 잡는 것입니다.

어르신 자녀들보다 저와 전화하는 것이 더 잘다 보니 관계 형성도 좋고, 저에게 의지를 많이 하시죠. 5월에는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을 궁금해 하셔서 직접 신청 방법과 일정을 알아봐 드리고 행정복지센터까지 같이 동행해 접수도 도와드렸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너무 고맙다고 선생님 아니었으면 신청도 못해서 받지도 못할 뻔했다며 어찌나 고마워하시는 지.. 제가 해드린 것도 별로 없는데 너무 많이 고마워해주시니 일의 보람도 느끼고 감사했습니다. 저는 어르신께서 지역사회구성원으로 오랫동안 함께 건강히 지내실 수 있도록 곁에서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생활지원사 직무가 더욱 뿌듯하게 느껴졌습니다. ■

따뜻함을 나누는 김용해 생활지원사!

집에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어르신들께 음식도 만들고, 퍼즐도 맞추고, 암화 부채도 만들며 손 운동도 하시고 뇌 운동도 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졸쌀 꽃이 피는 무렵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소개하는 영상을 찍었는데요, 어르신께 한 말씀 부탁드렸더니 '우리 막내딸 같다. 내 생활의 든든한 지원자다. 뭐든지 어려움이 있으면 자식보다 먼저 말하게 된다.'라며 제 칭찬을 얼마나 해주시던지...

평소에도 어르신의 따뜻한 마음은 잘 느끼고 있었지만 더 깊이 다가왔고, 생활지원사라는 직업을 통해 온정을 나누고 또 얻어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 따뜻함을 나누기 위해 늘 고민하고 노력하는 판교노인종합복지관 생활지원사가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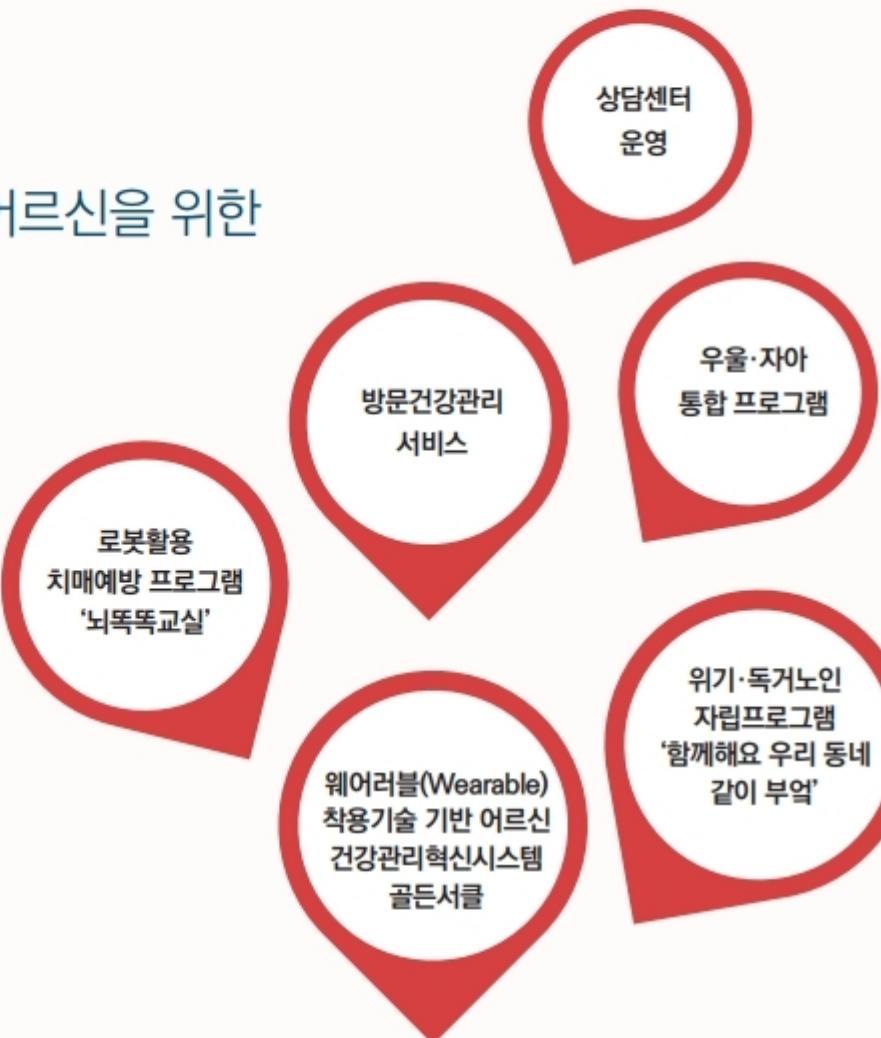
아 참! 봄에 촬영했던 영상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최우수 영상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광도 얻었습니다!

복합적 욕구를 가진 어르신을 위한 사례관리

2
더 가까이

기획특집
코로나19,
더 따뜻한
변화

글 사례관리팀



판교노인종합복지관은 복지·상담·보건·건강 분야의 전문가들이 복합적 욕구를 가진 어르신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행복한 삶·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로 관내에서 상담, 건강강좌, 간호·물리치료 서비스 등 직접적인 대면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들을 만나왔지만 코로나19로 대면 서비스의 어려움을 느껴 각 전문가들이 모여 비대면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 방문 덕분에 나에게 맞는 혈압약을 처방받을 수 있었어요.
너무 고마워요”



복지관 휴관 중에 가장 큰 걱정은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였습니다. 최O도 어르신께서는 최근 염증 수술로 건강관리에 힘써야 하는 시기에 사회복지사와 간호사의 가정방문으로 건강 수첩과 혈압 측정 기계를 받아 집에서도 건강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덕분에 15년간 복용해온 고혈압이 어르신과 맞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어 현재는 새로운 약을 처방받아 정상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외에도 최근에는 ‘골든서클’ 사업을 통해 스마트 시계를 활용하여 어르신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서지원, 영양지원 프로그램으로 종합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집 앞까지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배달의 복지

기획특집
코로나19,
더 따뜻한
변화

3

더 가까이

글 문창현 사회복지사

배달의 복지란?

스마트 기기 이용 또는 정보 접근이 취약한 어르신을 위해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복지에 기여하고자 기획하였습니다. 잠시 쉬고 있는 복지관 물품(악기, 운동용품, 태블릿PC, 밀 키트 등)과 복지관 소식을 어르신 가정에 직접 전달해 드리는 서비스로 가정방문을 통해 어르신 안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생생후기

차○연 어르신

일어 학습지와 태블릿 PC를 신청하였는데요, 최근 복지관에 온라인 평생교육 줌 프로그램 수강에 있어 휴대폰의 작은 화면으로 수강을 하다가 태블릿 PC를 활용하니 온라인 강의에 집중하기 훨씬 좋아졌습니다.

신○선 어르신

건강용품 품목리를 대여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집에서도 쉽게 운동할 수 있게 되어 참 편리하였습니다. 더욱 좋았던 것은 품목리를 활용한 운동방법 안내지가 같이 있어 다양한 동작 활용이 가능해져 참 좋았습니다.

이○기 어르신

그동안 복지관에 나가지 못해 사람들이 그리웠는데 직원들이 직접 복지관 물품을 배달해 주면서 서로 얼굴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반갑고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담당자 한마디

배달을 나가며 어르신들의 반가운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데 '고생했다', '고맙다' 같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더욱 힘나고 사회복지사로서 지역사회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뿌듯함을 느낍니다. 간혹 복지관에 구비되어 있지 않은 물품을 요청하실 때는 죄송스러운 마음이 커 앞으로 필요한 물품들을 배달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운 경로식당 맛을
재현해볼 수 있는

밀키트 MEAL KIT

글 최윤선 팀장(영양사)



배달의 복지 사업 중 눈길을 끄는 대여 품목이 보입니다. 바로 판교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메뉴 레시피가 들어있는 밀 키트입니다. 그동안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었던 그리운 경로식당 밥. 그중에서도 가장 그리운 맛은 무엇일까요? 마파두부 덮밥, 건새우 아욱 된장국, 제육 야채볶음, 치커리 유자소스 무침, 으깬 감자샐러드까지 엄선된 5가지 메뉴 레시피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손쉽게 조리해 드실 수 있도록 손질된 신선한 식재료와 딱 맞는 양의 양념을 포장해서 배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욱국 최윤선 영양사가 알려주는 따뜻한 밥상 레시피



- 만드는법**
- ① 아욱을 손질하여 흐르는 물에 바らく 문질려 씻는다.
 - ② 냄비에 손질한 새우를 넣고 강한 불로 달달 볶는다. (기름은 넣지 않기)
 - ③ 볶은 새우 위에 쌀뜨물을 조심조심 붓는다.
 - ④ 끓어오르면 된장을 풀고, 아욱을 넣는다.
 - ⑤ 대파와 마늘, 홍고추를 넣는다.



4

더 가까이

글 송희선 사회복지사

우리 동네
작은 복지관

기획특집
코로나19,
더 따뜻한
변화

복지관을 오지 못하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지역 커뮤니티센터인 작은 복지관 '경로당'은 여가·건강·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분당 제5권역 40개소의 경로당을 관리하고 있으나, 코로나 19로 장기간 문을 닫으며 어르신들의 안부와 건강이 걱정이 되는 시기였습니다. 다행히도 복지관 여러 자원을 연계하여 고령자 식생활 건강 개선 교실 연계, 대상포진 예방 접종 후원, 찾아가는 방문 보건 서비스, 필요한 후원물품 연계 등 어르신 가정으로 전달해드리는 개별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직은 경로당 정상 운영이 어려워 어르신과의 만남이 자유롭지 못해 아쉬움이 커 하루빨리 경로당이 정상 운영되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있습니다. 곧 어르신 가정에서 마스크 스트랩 및 레몬청을 직접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도 진행해볼 예정입니다. 안전함 속에서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볼 테니 어르신들께서도 그동안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특집
코로나19,
더 따뜻한
변화

언택트 홍보 채널

코로나19로 어르신과 직접 만날 수 없다 보니 자연스럽게 온라인 홍보가 작년 보다 더욱 활성화가 된 것 같아요.

물론,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기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복지관 소식 접근성이 떨어졌을 수도 있지만 복지관 내부 중심으로 진행됐던 홍보들이 지역사회로 범위가 확대될 수 있었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홍보 접근이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배달의 복지나 담당 사회복지사들이 직접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소식을 전달하기도 하였고,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새로운 SNS 홍보 매체를 만들거나, 홈페이지 개편도 했습니다. 알고 나면 쉬운 스마트폰! 이번 기회에 한번 배워보시면서 복지관 소식도 확인해 보세요. ☺



1
—
더 세심하게

글 우윤정 사회복지사

〈온라인 홍보 채널〉

홈페이지/어플리케이션

2020년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이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비대면복지서비스, 수강신청, 복지관 소식, 공지사항 등 복지관의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pangyonoin.or.kr



유튜브

만날 수 없어 더욱 보고 싶은 얼굴, 그리고 이야기들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료 특강과 보이는 라디오 등 더욱 생동감 있는 복지관 소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어르신 그리고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복지관의 이야기를 전달해 드립니다. 페이스북에서만 확인해 볼 수 있는 이야기들도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카카오채널

카카오톡에 '판교노인종합복지관'을 검색해 채널 추가를 하시면 복지관 소식을 채팅으로 받아 볼 수 있고, 궁금한 것이 있다면 채팅하기를 통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기획특집
코로나19,
더 따뜻한
변화

지금 유튜브에선? 2 더 세심하게



건강 —————

건강한 노년생활을 위해 사회복지사와 사회체육사들이 함께 건강지원 영상을 제작해 매주 게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용이나 외출이 제한되면서 신체 움직임이 줄어들고 그로 인한 근력, 심폐지구력 등이 약해지면서 신체적·정신적 건강 위험을 느끼는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년기 운동은 필수적인데 복지관을 나올 수 없다 보니 담당자들이 집에서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근손실 예방 운동 근력 감소 NO!운동'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어르신과 함께 맨몸 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참여 어르신들은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되다 보니 실시간으로 질문하고 소통할 수 있어 더 즐거운 운동 시간이 되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앞으로도 영상뿐만 아니라 참여하기 어려우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진과 운동 설명이 들어 있는 '하루10분 건강지킴이 브로마이드'를 가정에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 모두 건강하세요!



글 최윤아 사회복지사

교육 —————

교육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온택트(On+Contact) 문화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복지관 휴관이 장기화되면서 무료함 또는 우울감을 느끼시는 어르신과 강의를 진행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으실 강사님을 생각해보면서 더불어 함께 공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ZOOM을 통한 유료 강의와는 달리 유튜브에서는 무료특강을 게시하여 반복적으로 영상을 돌려보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무료특강이 시작되면서 채널 구독자수는 3배가량 증가하여 어르신들도 온택트 생활에 많이 익숙해짐을 느꼈습니다. 어르신들도 오랜만에 교육을 수강하게 되어 반갑고 집에서 편하게 들을 수 있어 좋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으며, 특히 가장 좋은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다시 돌려가며 자체 복습이 가능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질 높은 강의를 무료로 게시하여 어르신들의 여가생활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 장여진 대리(사회복지사)

소통 —————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시작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두 시풍당 지금 우리는' 보이는 라디오! 조문정, 우윤정 사회복지사(자칭 쪽D와 융D)가 함께하는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기분 좋은 음악과 사연 소개, 친구 또는 강사님의 안부를 확인하는 사랑은 안부를 싶고, 그동안 궁금했던 복지관 소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관 카페에 들러 자리 잡고 하하 호호 하며 친구들과 이야기 나눴던 일상의 소소함이 갑작스레 사라지면서 모든 것이 일시 멈춤 되고 늘 있을 줄 알았던 그 시간이 소중하고 무척 그립습니다. 종종 연락을 주시는 어르신들도 그때가 너무 그립다며, '이런 상황이 올 줄 몰랐다', '도대체 언제 볼 수 있나' 등 만남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지난 일상에 대한 그리움을 채우고 새로운 방법으로 어르신과 소통하며 또 다른 추억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보이는 라디오가 기획되었습니다. 앞으로 두시풍당은 다양한 코너로 어르신과 소통해 나갈 텐데요, 많은 사연 신청과 응원의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 '좋아요' 눌러주시는 어르신 사랑합니다. ☺

글 조문정 대리(사회복지사)



3 더 세심하게

기획특집
코로나19,
더 따뜻한
변화

달라진 수업 환경,

줌(ZOOM)에 대한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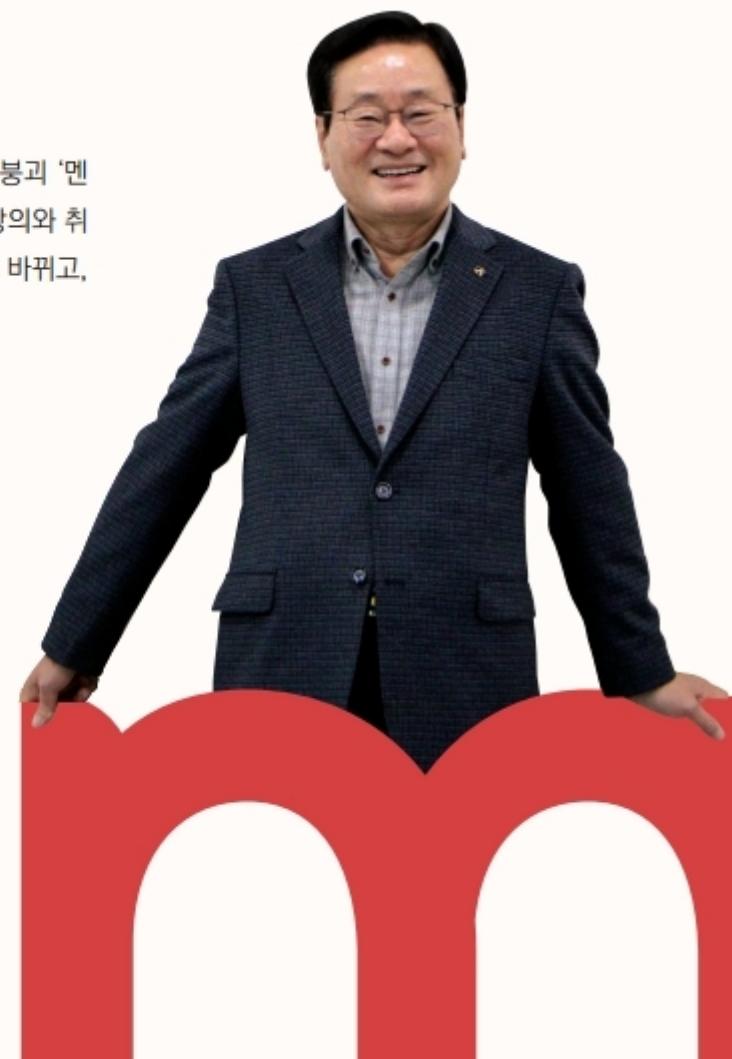
이야기 1 김미진 사회복지사

점점 격상되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프로그램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온라인 평생교육, 건강체육 프로그램 육구조사를 기반으로 10월부터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쌍방향 소통을 위해 화상 회의가 가능한 ZOOM이라는 매체를 활용하여 20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진행 초기에는 어르신들께서 온라인 수업이 어색하고 ZOOM 이용 방법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용방법 오리엔테이션과 시간이 지나 수업이 익숙해지면서 어려움은 해결되었습니다. 이제는 댓글로 소통하며 수강하고 있는 어르신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으며, '1:1로 과외 받는 기분이다', '그동안 복지관 교육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고 있다', '회원들과 강사님을 화면으로 만나서 기쁘다'라는 긍정적인 반응도 많았습니다. 복지관 휴관으로 장기간 교육을 듣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걱정되었는데, ZOOM을 활용한 교육 덕분에 어르신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드릴 수 있어 기획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야기 2 변현아 영어초급 강사님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가 5,6월이 지나고 또 7,8월이 지나도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갈 기미가 안 보이니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동안 명상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틈틈이 운동하면서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려 애쓰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복지관 연락을 받아 비대면 화상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고 트렌드에 맞춰 줌 수업에 금방 적응하고 저와 함께 해내가는 어르신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비대면 수업 시스템화 정착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화상 수업을 통해 영어 콘텐츠를 제공하고, SNS로 저의 가치와 수업을 알리는 것에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각자의 공간에서 원하는 수업을 듣고 소통하는 것에 익숙해진다면 코로나 상황도 극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야기 3 윤정규 어르신

코로나19로 처음에는 일상생활이 어리둥절하고 그야말로 멘붕' 상태로 지냈습니다. 은퇴 후 복지관과 주민센터에서 듣던 강의와 취미생활도 올 스톱되어 집에서만 지내다 보니 일상생활 습관도 바뀌고, 불안하고, 조심스럽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8개월 이상을 허송세월 보내고 있던 와중에 복지관에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줌으로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앱 설치, 카메라 조작 등 기술적인 문제가 다소 어렵고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막상 해보니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쉽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온라인 수업의 가장 좋은 점은 시간과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집중적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비대면 시대가 얼마나 지속될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종전처럼 정상적인 수업은 아직 어렵다고 생각하고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수업에 적극 참여할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도 참여하고 적응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똑똑!

사랑의 주머니 도착했습니다.

기존 생계 어려움을 겪고 계신 어르신이나

코로나19로 경제적 활동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분들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지원을 받아
지역발전운용자금지원사업 '사랑의 주머니'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의주머니는 어르신들이 필요한 식료품 및 생필품을 담당 사회복지사가 직접 구매하여 각 가정에 전달해드리는 사업인데요, 매달 어르신 안부 확인하고 친밀해지면서 정서지원도 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은 평소 잘 먹지 못하는 밑반찬(돈육, 우육, 과일)을 받아 한층 식탁이 풍족해져 균형 잡힌 식사가 가능했습니다.

어르신 한 분께서는 건강한 식재료 제공으로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면서 저체중에서 정상체중으로 몸무게가 증가하고, 지원 품목 중 하나인 비타민 보조제를 복용해 환절기에 항상 앓던 감기에 걸리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또 늘 잇몸에 피가 났었는데 피도 안 나고 아주 건강해지셨다며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는데요, 사업 운영하면서 대상자의 긍정적인 변화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이00 어르신은 남편과 함께 비정기적인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다 보니 간단하게 식사를 해결하며 지내셨는데 사랑의주머니를 통해 오랜만에 다양한 식재료로 요리를 할 수 있게 되어 행복했다는 말씀도 전해주셨습니다. 사랑의주머니가 생필품 지원만이 아닌 사랑의 마음도 전해져 따뜻한 지역사회 공동체를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

글 김대건 사회복지사



우리함께 We Work

We Work 사업은 한국지역난방공사 판교지사의 후원으로 함께하는 지역사회를 위해 성남시 거주자 중 소일거리 희망자 4명을 모집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참여자들은 주5일, 일 2시간씩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 50명에게 도시락 배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매일 같이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열정 있게 일해주시는 아름다운 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글 박가령 사회복지사



차동연

우연히 지역 방송 뉴스에서 We Work 사업 소식을 접하고 바로 서류 준비해 지원했습니다. 매일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것도 즐겁고, 도시락을 기다리시는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한끼를 가져다드리는 활동에 보람도 느끼며 일상의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진숙

사회복지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도시락 배달 활동을 하며 주변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어떻게 일하는지도 보게 되고 미처 생각 못 한 세세한 부분까지도 사회복지사의 노고가 있었다는 것에 새삼 놀라웠습니다.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 더 많이 배울면서 지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한진총

나이를 먹었다는 소리를 듣는다 하여도 생각뿐인 사고방식보다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재 맡은 업무덕분에 규칙적인 생활도 가능해지고 지루했던 일상에 활력이 넘쳐하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 따뜻한 밥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양세욱

이번 활동으로 사회복지 기관의 기능과 역할이 무척 방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에 대한 사회문제와 대안에 대한 필요성도 현장에서 많이 느꼈고요. 봉사활동과 사회복지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욕구를 찾게 되어 굉장히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글 조웅진 어르신

지역사회 노인들에게 건강운동을 지도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의 삶에 도움을 드리고자 재능나눔 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재능나눔 활동을 통해 내가 쌓은 지식과 경험, 노하우가 사라져 없어지기 전에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나누어줌으로써 재능을 사회에 환원함은 물론, 함께 즐겁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자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 활동을 못하고 복지관 회원들에게 코로나19 안부 연락을 하던 중에도 집에서 할 수 있는 건강 운동을 전화상으로 지도하기도 했는데, 마침 촬영팀과 함께 시니어 웰빙스트레칭 및 근력 증강 유튜브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에 많은 전문가들의 영상이 있습니다만 노인들이 노인을 위하여 직접 만든 영상은 못 본 것 같습니다. 저희 팀은 평균 나이 70후반이지만 직접 기획, 강의, 연출, 촬영, 편집, 제작에 이르기까지 일괄적으로 하여, 같은 또래의 노인들에게 더 쉽게 친숙하게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노인 재능나눔 활동 지원사업'은 어르신들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사회 참여 활동을 함으로써 수요자는 맞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참여자는 주체가 되어 자기개발을 한다는 점에서 만족감이 증진되는 'win-win' 사업입니다. 현재 비대면 활동으로 전환되면서 스트레칭 영상 제작, 전화 상담, 문해교실 등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재능을 보고 있으면 정말 놀랍고 앞으로가 더욱 기대됩니다.

글 허승연 사회복지사

**노인재능나눔의
새로운 기준:
나도 잘 할 수 있다**

행복을 나누는 따뜻한 손길

글 심세현 사회복지사

'환우와 함께하는 아라인형공방'은 마루아라 작은도서관, 분당서울대 병원 3개 기관이 연계된 2020년 행복학습센터 공동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어르신이 직접 2개 인형을 제작하여 그중 1개 인형은 분당서울대병원 어린이병동 환우들에게 전달되는 사업이며 온라인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는 안내에 '어렵지만 한번 해보겠다'는 어르신, '바느질에 능숙하진 않지만 참여하고 싶다'는 열정을 보이신 어르신 등 낯설고 새로 시작된다는 설렘을 갖고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는데요. 어르신들은 처음에 가졌던 걱정과 달리 온라인 매체 사용에 점차 능숙해지셨고 그 결과 열정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처음 빠뚤빼뚤한 바느질에 부끄러움을 표했던 어르신도 프로그램이 끝나는 순간에는 어느새 프로의 손길이 담긴 인형을 제작하였다고 저에게 알려주었던 소녀 같던 모습이 아직 생생합니다. 한 어르신은 이번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손자에게 줄 인형도 만들고 재능기부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프로그램이라 더 뜻깊었어요."라는 말씀도 해주시곤 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이 열심히 제작해 주신 인형이 전해져 기뻐할 환우들을 생각하니 저 또한 마음이 저절로 따뜻해지는 사업이었습니다. 두 달이라는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매주 발전해나가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며 개인적으로 많이 배우고 긍정적인 자극이 되었던 시간 같습니다. ☺

marara



무용으로 표현하는 나의 이야기

글 김지윤 사회복지사

노년기 창작무용 프로그램 '썸바디'는 다양한 소품을 활용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창작무용을 배우고, 나만의 동작으로 나 자신을 표현하며, 노년기의 삶을 활기차게 보낼 수 있도록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썸바디가 시작되기 전, '무용이라는 분야가 난생처음이어서 수업에 잘 따라갈 수 있을지 걱정이다', '무용에 관심이 생겨서 신청했지만 두려움이 크다' 등등... 새로운 경험과 도전에 대해서 걱정이 앞선 어르신들께서도 강의가 진행될수록 '무용의 매력에 끌리고 있다', '의미 있고 값진 경험을 얻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제는 자신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감사함과 더불어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앞장서서 다음 강의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는 어르신의 모습이 마냥 행복해 보입니다.



my life

그림으로 이해하는

나의 삶

글 김세진 사회복지사



미술표현프로그램, '눈이 부시게'는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고 있고, 기존 미술프로그램과 다르게 실력 향상이 목적이 아닌, 미술을 통해 어르신의 삶을 표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참여 어르신을 모집할 때 어르신의 참여 동기를 작성했는데, 한 어르신께서 '몇 년째 손주를 도맡아 키우느라 육체적으로 힘들고, 나만의 시간을 갖지 못해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미술을 접하며 마음의 위안을 삼고 싶다'는 어르신의 동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눈이부시게는 기존 미술프로그램과 다르게 다양한 미술재료를 활용하여 독창적인 수업이 가능해 어르신들께서 새로움과 미술에 대한 재미를 느낀다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12월에 작품 전시회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건강함을 나누는 노인건강리더 지도자

글 이동재 선임사회복지사

노인건강전문지도자 역량강화교육은 시니어 운동 지도자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 습득 및 역량강화를 도모하며, 지역사회 노인건강 운동방법을 전파하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육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는 심화과정과 주간보호센터 어르신 대상 재능기부 활동까지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9월 중순부터는 건강리더 홈스트레칭 '혼자서도 잘해요!' 비대면 교육을 통해 개인 운동 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는데 어르신들의 노년기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맞춤형 스트레칭 활동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운동 실습을 하고, 교본을 제작하면서 함께 즐기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글 김현숙 어르신

복지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하던 중 지인의 권유로 노인건강 전문지도자 교육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주변 많은 분들의 관심이 건강인데, 해당 교육의 자세한 설명을 통해 노년기 신체적 특성과 그에 맞는 활동에 대해 이해하게 되고, 함께 운동을 하면서 저 자신도 더 건강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더불어 주간보호센터 어르신 대상 운동 재능기부 봉사 활동의 기회도 생겨 일석이조의 즐거운 시간이 되었답니다. 요즘은 비대면 수업을 하는데 꾸준히 하면서 건강유지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과 교육이 계속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



판전으로 보는 미술관 프로젝트

글 김세진 사회복지사

〈화조도〉 박은하 어르신

미술관 프로젝트는 복지관 이용 어르신에게 문화예술향유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미술 프로그램 수강 어르신 및 강사님의 작품 전시 활동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프로젝트는 어떤 것이 있었나요?

올해는 아쉽게도 유튜브로 작품을 전시하고 함께 따라해볼 수 있는 체험 영상으로 대체되었는데요, 현재까지 캐리커처, 민화 팀이 참여했고 곧 사군자와 산수화 전시가 있을 예정입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대면할 수가 없다 보니 강사님, 어르신과 함께 회의를 진행할 방법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다행히 SNS나 줌(ZOOM)을 활용해 회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작품 전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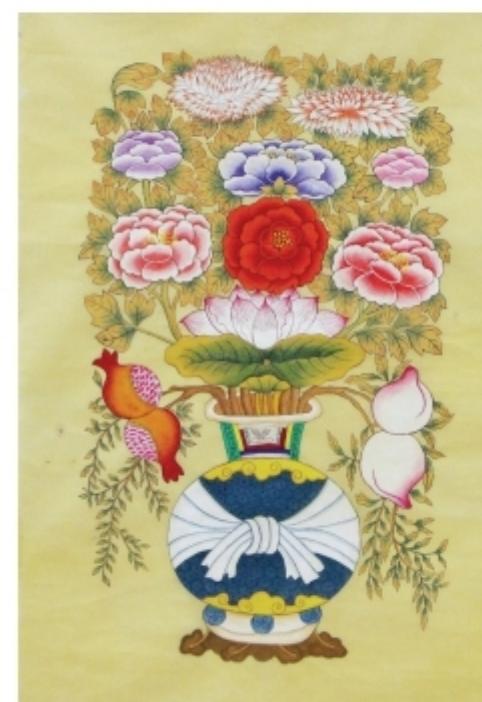
어르신들에게 어떤 반응이 있었나요?

저도 처음 진행한 것이라 어르신 반응이 걱정됐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줌(ZOOM)을 통해 민화체험활동을 진행하였는데 강사님의 질문에 답도 못 하실 만큼 어르신들께서 높은 집중력을 보여주셔서 인상 깊었고, 작품을 보시고 '옛 시절이 떠오르고 그립다.', '시간활용과 취미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같은 의견도 주셨습니다. ☺



〈약리도〉 최영숙 어르신

과거 급제 혹은 출세를 상징하는 도상으로 요즈음은 시험을 앞둔 아이들 방에 걸어 두거나 선물로 활용



〈화병도〉 김명순 어르신

물은 생명의 근원으로 화병에 물을 담는 것은 만물이 생성되어 발산하는 것이며, 또한 발음대로 가정에 화평을 주는 의미



〈화조도〉 유귀수 어르신

한 쌍의 새는 행복한 부부생활을 비유하며 주로 가정의 화합과 행복을 추구하는 의미



〈까치호랑이〉 박은하 어르신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동물로 우리 겨레의 영물로 길상의 의미가 있으며 호랑이의 용맹성으로 벽사의 의미를 가짐



한려수도의 비경과 예향의 도시 **통영**

글 우윤정 사회복지사

겨울여행하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춥지만 고요함과 낭만이 있는 겨울바다,
그리고 싱싱한 겨울 제철 해산물
이만하면 설렘 가득한 겨울 여행지로 제격이지 않을까요?

가볼 수 있다면 지금 당장 버스표를 예매해서
떠나보는 즉흥 여행도 좋고,
그럴 수 없다면 판교판전에서 겨울 감성을 느껴보세요.

#1 케이블카 타고 한려수도 비경 감상

우리나라 8경 중 하나로 호수와 같은 잔잔한 물결,
고요한 포구, 곳곳에 떠 있는 수많은 섬들이 아름다
운 풍광을 보여주는 바닷길 한려수도. 통영 케이블
카를 타고 미륵산 전망대에 오르면 한려해상국립공
원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2 예향의 도시 통영, 동피랑 벽화 앞에서 인생 사진 남기기

동쪽 벼랑이라는 뜻을 가진 동피랑 마을, 그곳에 가면
구불구불한 오르막 골목길에 형형색색 화가들이 그린
벽화가 눈길을 끕니다. 2008년 처음 벽화마을로 그려
져, 2년을 주기로 벽화들이 새롭게 탈바꿈 된다고 하니
마음에 드는 벽화 앞에서 사진은 꼭 남기면 좋을 것 같
습니다. 벽화를 구경하며 동피랑 언덕에 올라서면 통영
강구안을 가장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전망도 펼쳐지니
꼭 끝까지 구경해보세요.

#3 보는 맛, 먹는 맛 다 있는 통영 중앙시장

동피랑 벽화마을 근처에 중앙시장이 있습니다. 시장에
는 싱싱한 해산물 외에도 통영의 명물 꿀빵도 있고, 각
종 음식점들도 많이 있으니 꼭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에서 여러 사람들과 먹기가 불편하다면, 회를 포
장해 숙소에서 드시면 더욱 여유로운 식사를 할 수 있
을 것 같아요. ☺



판교봉은주간보호센터

판교봉은주간보호센터는 노인성 질병(치매, 파킨슨 등)으로 장기요양등급(1~6등급) 급여로 판정받으신 65세 이상 또는 미만 어르신을 위해 신체기능회복, 인지능력 유지, 정서지원, 취미/여가활동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 전문기관입니다. 현재 분당구 거주 28명의 어르신이 이용하고 있으며, 하루 8시간 동안 어르신을 보호해 드리고 송영서비스를 제공하여 보호자 수발 부담을 경감하는데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글 이기환 팀장(사회복지사)

2020. 10. 30 날씨 맑음

김00 어르신의 하루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 딸이 해주는 아침을 먹고, 복지관에서 오는 전화를 기다렸다. 전화가 울려 밖으로 나가니 우리 선생님이 웃음이 가득한 얼굴로 반겨주니 참으로 고마웠다. 차를 타고 가는 길에는 아름다운 단풍들 구경을 하고, 함께 타고 가는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과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복지관에 도착한다. 차에서 내릴 때면 다리에 힘이 없는 나를 위해 젊은 친구들이 휠체어에 탈수 있게 도와주어 편하게, 센터에 들어가니 우리 선생님들이 또 한 번 반겨준다. 점심 먹을 시간이 되니 즐거운 노래로 시작해 함께 밥을 먹었다. 밥을 먹고 나니 밖으로 나가고 싶은데 옆에 선생님들이 도와주니 불안하지 않았다. 오후에는 선생님들과 그림도 그리고 예쁜 꽃을 화분에 정성스럽게 심어봤다. 집에 갈 때에는 하루가 금방 지나간 것 같아 내심 아쉽기도 하지만 내일 또 만나니 괜찮다. 도움이 필요할 때 항상 곁에서 도와주고 든든하게 지켜주는 우리 선생님들이 고맙습니다. 내일도 센터에 갈 시간이 기다려진다.



슬기로운 복무생활

글 박동균, 오병호 사회복무요원

저희는 어르신들이 신으실 실내화를 자리에 놓고 휠체어를 준비해 송영 차량을 기다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르신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 마음이 설렙니다. 차에서 내리시는 어르신들은 항상 밝게 웃으며 오늘도 또 만났다는 이야기와 함께 인사를 건네십니다. 센터에 들어와 옷을 정리하고 자리에 앉아 계신 어르신들은 어제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누며 다른 어르신들을 기다리십니다. 주된 업무는 어르신 활동 보조인데 먼저 아침 시간엔 발 마사지와 자전거를 타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립니다. 진료실을 가거나 외부 활동하실 땐 이동을 도와드리고, 식사준비를 하고, 수업 진행을 도우며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하루에도 여러 번 고맙다는 인사해 주시는데, 그럴 때마다 보람찬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뿌듯함을 느낍니다. 어르신들! 항상 건강하고 저희와 함께 행복한 센터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역사회 상생

글 현대중공업그룹1%나눔재단

현대중공업그룹1%나눔재단은 현대중공업그룹 임직원의 급여 나눔과 계열사의 특별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재단입니다. 설립 당시의 마음가짐을 소중히 지키며, 소외된 이웃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 등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가 성남시에 입주해 있고, 향후 한국잡월드 부지에 현대중공업그룹 R&D 센터 건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성남지역에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현대중공업그룹 1%나눔재단에서는 성남지역의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따듯한 식사를 대접해 드리고자 판교노인종합복지관과 제휴하여 '1%나눔진지방' 사업을 기획했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깨끗한 기금 운용으로 1%나눔재단의 기금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변 이웃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모두 함께 잘 살아 봅시다!

글 세노컴퍼니

세노컴퍼니는 스페인어로 '(세노)보다 빠르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보다 빠르게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현재 자체 운영 브랜드로 생활용품 및 헬스케어 전문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후원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주변에 있는 친구, 이웃 모든 분들이 즐겁게 잘 살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해 2016년 설립 후 수익의 일부를 사회단체에 후원해 오고 있었습니다. 올 초 저희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인 전동칫솔, 마스크, 허리보호대를 기부하고 싶어 알아보다가 대상자가 어르신이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판교노인종합복지관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성남시 어르신을 위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드려 모두 함께 웃으며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꾼!

글 멀티폰샵

저희 멀티폰샵은 최신스마트폰/효도폰/선불폰/알뜰폰 개통, 중고 핸드폰 매입과 판매, 아이폰 수리 등 핸드폰과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다루는 업체입니다. 오프라인매장과 카카오톡채널, 인스타그램, 네이버블로그와 같은 온라인사이트를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국내최대규모 온라인 중고사이트인 '중고나라'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업을 운영하면서 문득 빠르게 변하는 스마트 시대에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힘든 어르신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런 어르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보다가 판교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기기 설명과 필요한 액세서리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 후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업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자원봉사자

아름다운 당신

개인

(2020.1~2020.2)

강성욱, 강성태, 강옥주, 고명순, 고미혜, 권경옥, 권대환, 권준희, 권흔주, 김가은, 김광미, 김규환, 김남은, 김다혜, 김명종, 김미영, 김미현, 김민재, 김범수, 김병길, 김보민, 김봉곤, 김삼룡, 김상희, 김석환, 김성숙, 김성태, 김수정, 김승웅, 김영옥, 김영은, 김영현, 김원향, 김윤경, 김은숙, 김은지, 김재미, 김재희, 김정순, 김정식, 김정우, 김정희, 김제형, 김종은, 김종현, 김지은, 김태연, 김필주, 김현경, 김현숙, 김현자, 김해숙, 김홍점, 김희숙, 김희용, 나향준, 남관현, 남기형, 남태혁, 남혜린, 노광희, 노선경, 노지원, 류민주, 문경화, 문남미, 문성준, 문승, 민경미, 민경순, 민동환, 박명자, 박성원, 박수혜, 박양부, 박연수, 박영애, 박은미, 박재만, 박정례, 박지연, 박진희, 방명일, 방세정, 방오희, 배선희, 백숙경, 백지아, 변호준, 서동자, 서선혜, 서연지, 서윤아, 설지원, 손영식, 송낙순, 송덕자, 신선희, 신숙례, 신영은, 신정순, 심예온, 심준보, 심향섭, 안승현, 안철감, 양완석, 양종열, 양주연, 양지웅, 양희정, 엄용찬, 여운창, 오선민, 오세은, 오승연, 오종룡, 오주석, 오현숙, 오희영, 오순자, 우순자, 원석연, 원지희, 위성미, 유경연, 유경자, 유미성, 유복순, 유부근, 유석재, 유정주, 유진경, 유호연, 윤갑숙, 윤명순, 윤병은, 윤세준, 윤수혜자, 윤순녀, 윤원분, 윤정명, 은정수, 이강민, 이건중, 이금선, 이난순, 이동희, 이두현, 이명숙, 이명자, 이명희, 이문영, 이복화, 이부임, 이선우, 이성예, 이승환, 이영자, 이영효, 이옥자, 이옥타, 이원규, 이윤학, 이은숙, 이인수, 이인숙, 이재완, 이정수, 이정원, 이종애, 이주호, 이준식, 이준영, 이진, 이창열, 이춘애, 이화순, 임동희, 임철호, 장예은, 장옥자, 장인국, 전미라, 전상훈, 전유미, 전은형, 전희철, 정규민, 정대만, 정도희, 정명숙, 정미자, 정병진, 정세연, 정승혁, 정양수, 정재희, 정진용, 정찬오, 정한별, 정해선, 정효석, 정효재, 조병순, 조상아, 조수자, 조영희, 조재광, 조태식, 조희숙, 주기선, 지혜자, 차유미, 채명순, 채현숙, 최경자, 최균형, 최난식, 최남신, 최미르, 최성환, 최승자, 최영숙, 최윤혁, 최정원, 최지원, 최현숙, 최현준, 최희석, 하식, 하태규, 한경순, 한채연, 한현임, 함승필, 현혜옥, 흥영숙, 흥해선, 황민용, 황지훈, 황하은

〉 후원자

개인

(2020.1~2020.10)

강연선(김화가자), 강정숙, 고명순, 구자연, 김경선, 김군자, 김근석, 김대건, 김덕길, 김명환, 김미진, 김병옥, 김보나, 김성균, 김세진, 김수영, 김영돈, 김영순, 김정남, 김종길, 김주, 김주홍, 김지윤, 김진석, 김충희, 김학현, 김호기, 김호순, 김통현, 남정덕, 노가연, 모범훈(이현숙), 문창현, 박가령, 박동연, 박상진, 박수혜, 박재만, 박필래, 박현정, 배유진, 석영희, 석창준, 성덕희, 송관호, 신재원, 심재권, 안정만, 안혜신(이진범), 양명숙, 양은혜, 오순자, 우윤정, 원향연, 유기동, 유길자, 유남욱, 유부근, 유수근, 윤애귀, 이계화, 이기일, 이기환, 이남우, 이동재, 이명희, 이순호, 이연화, 이영숙, 이옥성, 이윤선, 이인경, 이자영, 이진우, 임규현, 장여진, 장지웅, 장혜경, 전민하, 정상훈, 정정순, 정학자, 조말순, 조문정, 조옥녀, 조혜숙, 주지현, 진범, 진성욱, 최동환, 최명신, 최윤선, 최윤아, 최정은, 편창옥, 한정태, 한정혜, 한현임, 허승연, 허여선, 흥선표, 황도성, 황성미

단체

(2020.1~2020.10)

(사)하대원도매시장상인회, (주)세노컴퍼니, (주)케이엠팩, (주)희망일자리나눔 농업회사법인(주)새별,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롯데쇼핑(주), 분당종고폰멀티폰샵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법인 우양, 서울우유 분당중부대리점,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성남시재가노인복지협회, 씨제이엠디원, 씨제이제일제당(주) 오데뜨, 우리숙주, 인큐랩스 주식회사, 주식회사캐치업코리아, 준희어패럴 커피메이트,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재활 체육센터 한국지역난방공사판교지사, 한마음사회복지재단중앙회 황승노인종합복지관

Thank you

› 후원금(품) 사용내역

아름다운 당신

판교노인종합복지관

후원금 사용내역
(2020.1.1~10.31)

수입	
지정후원금	67,132,960원
비지정후원금	11,982,500원
합계	79,115,460원

지출	
지정후원금	42,037,680원
비지정후원금	1,626,425원
합계	43,664,105원

후원품 사용내역
(2020.1.1~10.31)

수입	지출
173,572,743원 상당	160,229,603원 상당

Thank you

판교봉은주간보호센터

후원금 사용내역
(2020.1.1~10.31)

수입	지출
비지정후원금	비지정후원금
1,869,340원	2,209,390원

자원봉사

남을 위한! 그리고 나를 위한!!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첫 걸음!!!
판교노인종합복지관은 2017년 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센터로 등록되어
봉사활동 인증관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활동절차



1) 접수

내방, 전화, 홈페이지



2) 상담

전화 및 방문상담



3) 교육

봉사자교육 및
기관안내



4) 진행

자원봉사활동

love



5) 실적 확인

VMS 인증관리

신청문의

방문
월~금 / 9시~6시

홈페이지
www.pangyonoin.or.kr

전화
031-620-2810

후원

나눔으로 인한 큰 기쁨을 판교노인종합복지관에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납부방식

CMS

매월 약정일 통장에서 자동 인출
CMS 신청서 작성

계좌이체

복지관 후원계좌로 입금
국민 093601-01-014737

직접후원

후원금 및 물품 전달
문의: 031-620-2810

후원에 참여하시면

- 후원하시는 모든 후원금 및 후원물품은 노인복지사업을 위해 사용됩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발행
- 후원 영수증 발급과 소식지 발송
- 송년의 밤 초대